

재외동포의



2014 | 06

특집 | 차세대 한상의 글로벌네트워크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베이징 세미나 100여 명 참석 “화상과 유대상 뛰어넘자”

화제 | 재외동포 기업인 북한 개성공단 방문

입주기업 둘러보며 투자 진출 모색

한민족공감 |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강력하고 긴밀한 동맹 확인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정조가 특별히 기획하고 제작한 활자

# 정리자

**정**리자(整理字)는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 때 주조된 구리 활자이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경기도 화성으로 옮긴 후 그곳에 여러 차례 다녀왔고 그때마다 정리사(整理使)를 두어 행차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

정리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국왕이 바깥으로 행차할 때 호소에서 국왕이 머물 행궁을 정돈하고 수리해서 새롭게 만드는 일을 의미하며, 이를 관장하는 관리를 정리사라고 불렀다. 행사를 마친 후 행사와 관련된 여러 사항을 기록한 의례(儀軌)를 간행하기 위해 정조의 지휘 아래 제작된 활자 이름 역시 정리자로 불리게 됐다.

1795년에 주조를 시작해 1796년에 마무리된 정리자는 큰 활자 16만 자, 작은 활자 14만 자에 달했다. 그 이전의 의례는 모두 필사본이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금속활자로 간행한 '원행요정리의례'가 나왔다. 금속활자를 만들어 의례를 인쇄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책을 읽도록 해 왕실의 위엄을 널리 알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정리자에는 출판과 활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정조의 활자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잘 반영돼 있다. 정리자를 만들기 전에 사용되던 임진자, 한구자 등은 활자의 몸체가 일정하지 않아 조판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나 정리자는 이전에 만든 활자와 달리 모양과 높낮이가 일정하다. 활자의 모양이 일정하면 조판을 할 때 활자의 높낮이를 맞추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므로 자연히 인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후 정리자는 수원 화성의 건축 과정을 기록한 건축보고서인 '화성성역의례' 등 여러 책의 간행에 사용됐고, 고종 연간에 간행된 '지방제도개정', '공법회통' 등 근대적 서적을 간행할 때도 사용됐다.



▲ 정리자 활자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성역의례'는 정리자로 인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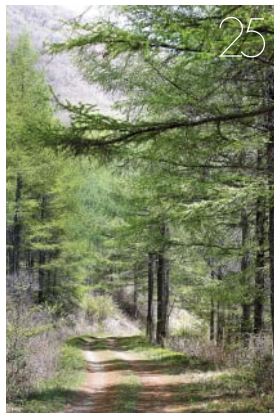


### Cover Story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N) 세미나가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 CONTENTS

## 재외동포의 창



- |    |               |   |
|----|---------------|---|
| 02 | 한국의 열         | 정리자   |
| 04 | 특집            | 차세대 한상의 글로벌네트워크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
| 06 | 동포소식          | 미뉴욕주 상원에서도 동해 병기 법안 통과와   |
| 10 |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6 | 화가 등 유학생 중심으로 시작한 프랑스 한인사   |
| 12 | 화제            | 재외동포 기업인 북한 개성공단 방문   |
| 14 | 글로벌 코리아       | 벨기에로 입양된 용 애낭 감독 애니메이션 국내 개봉<br>재미동포 첫 여성 주하원의원 신디류<br>'브라질 속의 한국인' 전 주도한 김유나 |
| 16 | 지구촌 통신원       | 2014 브라질 월드컵 응원 준비하는 브라질 동포들  |
| 17 | 동포정책 Q&A      |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혜택   |
| 18 | 한민족 공감        | 한·미 정상회담 개최   |
| 19 | 동포의 창         | 재미한인 작가의 아프도록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
| 20 | OKF 뉴스        | 각국 동포 '세월호 위로' 한마음...한달간 1억여 원의   |
| 22 | 동포문화          | 늑대를 위한 조시   |
| 23 | 우리말 배워봅시다     | 바른 말 고운 말<br>날말 맞추기   |
| 24 | 고향 소식         | 강원도 정선과 태백의 고산 둘레길 운탄고도   |
| 26 | 재단공지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

2014 06 June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산HP

▶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한상의 글로벌네트워크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베이징 세미나 100여 명 참석 “화상과 유대상 뛰어넘자”



**동** 포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목표로 재외동포재단이 적극 후원하고 있는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가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올해로 5회째인 세미나는 그동안 LA·상파울루·도쿄·자카르타에서 열렸다.

YBLN은 2007년 부산 세계한상대회에서 30~40대 젊은 한상 중심으로 결성된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이번 모임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중간모임이다. 화상과 유대상을 뛰어넘는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들의 목표로 참가자는 100여 명에 이른다. 국적도 중국·일본·동남아·중남미·미국·유럽 등 전 세계를 아우른다.

고해정 YBLN 회장은 “중간모임은 시작 5년 만에 1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앞으로 365일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미국 LA에서 20명 규모로 시작한 YBLN 중간모임은 그간 상파울루(40명)·도쿄(60명)·자카르타(80명)에서 진행됐다. 특히 베이징포럼에는 중간모임 사상 처음으로 세계한상대회장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까지 참석했다.

13일 베이징 캄핀스키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광주 세계한상대회에서 다른 민족을 능가하는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여러분의 열의에 크게 감동했다”며 “한상의 미래와 방향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더 나은 한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항상 새로운 도전에 준비해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영산그룹을 이끌며 2014 세계한상대회장을 맡은 박종범 회장은 축사에서 “젊은 한상들이 성장해야 한상대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젊은 한상들은 열린 사고로 한상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선배 기업인들을 뛰어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만찬 후 베이징대학교 한인 유학생 동아리의 댄스 및 사물놀이 공연을 감상했다. 차세대 한상들은 이번 대회에서 중국 시장 정보 수집과 회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들은 14~15일 이틀간 분야



1.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세미나가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2. 젊은 한상들은 세미나 기간에 격의 없는 소통과 친교를 통해 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 YBLN 세미나 참석자들은 베이징 한국문화원 강의실에서 박준성 레전드캐피탈 이사로부터 중국에서 식품사업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애로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4.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YBLN 세미나 개막식 축사에서 “보다 나은 한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5. 고해정 YBLN 회장은 세미나에서 “앞으로 365일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별·주제별로 세미나를 시행했다. 특별 초청 강연에는 쉬단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당시기와 박준성 중국 레전드캐피탈 이사 등이 참여하여 젊은 한상들에게 각각 중국 경제와 투자 환경에 대해 소개했다. 박 이사는 '21cake를 통한 중국 진출 케이스 스터디'란 주제 발표를 통해 중국에서의 식품 비즈니스 노하우와 애로점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들은 본인의 사업 경험을 조원들과 공유하며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회원들은 YBLN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하자면서 상호 경험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한상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베이징 세미나 기간에 열린 YBLN 운영위원회는 내년에 열릴 제6차 YBLN 세미나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에서 이 행사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이어 운영위원회는 YBLN 네트워크 확장 차원에서 해외 사절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이다.

천주환 YBLN 아세안지부 회장은 “CIS 지역 회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공고한 네트워킹을 위해 7~8월께 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화상과 유대상을 뛰어넘는 한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YBLN 참가국을 적극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등 CIS 출신 한상들은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했지만 일회성 만남에 그쳤다.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하지 못해 기존 회원들과 네트워킹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CIS가 옛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교포 3~4세대들은 영어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YBLN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이기로 한 것이다.

올해 한상대회에서도 영비즈니스리더포럼(YBLF)이 개최될 예정이며, 기존 참가자(YBLN)와 신규 참가자 약 150여 명이 대회기간 동안 한상의 미래와 한민족의 번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9월 24~26일 부산에서 열린다. 제13회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 부산시 등이 주관하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㉞



## 미뉴욕주 상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 통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확정된 데 이어 뉴욕 주 상원에서도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됐다. 특히 뉴욕 주 상원은 '세월호 참사' 애도 결의안까지 채택, 뉴욕 주 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애도 결의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뉴욕 주 상원은 5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 찬성 5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독립민주권퍼런스(민주당 탈당의원 모임)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뉴욕 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증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의무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동해 단독 표기'와 '군 위안부 관련 교육'을 주 내용으로 했으나 동해 단독 표기가 시기상조라는 한인 사회의 설득으로 수정됐다.

동해 병기 입법을 추진하는 범동포추진위원회는 뉴욕 주 상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원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아벨라 의원의 법안을 서둘러 하원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된 동해 병기 법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별도로 제출된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힘을 합해 만든 법률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돼 있다.



▲ 토니 아벨라 뉴욕 주 상원의원이 한인 동포들도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예스! 동해. 노! 일본해'라고 적힌 파란 티셔츠를 입고 있다.

## 브라질 초·중등학교, 한국어 정규 과목 첫 채택

브라질에서 초·중등학교가 한국어를 정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타난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여진다.

5월 9일 브라질 제1도시 상파울루 시내 디아스포라 학교(Colegio Diaspora)에서 한국어 정규 교과 과목 채택 기념식이 열렸다. 이 학교는 지난해 9월 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매주 1시간씩 한국어를 시행했다. 이후 브라질 교육부의 정식 승인을 받아 지난 2월부터 중학교 6~9학년 과정에 주당 1시간씩 정규 교과 과목으로 편성했다.

디아스포라 학교가 한국어를 정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한 것은 우리 교육부의 외국 현지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사업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인건비와 연수비, 교재 구입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응시료 등 연간 3만6천 헤알(약 1천6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아스포라 학교는 1999년에 개교했으며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디아스포라 학교를 포함한 4개 학교에서 지난해부터 방과 후 활동으로 주당 1시간씩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후모 학교(Colegio Rumo)와 빌라 다스 크리안사스 학교(Escolar Vila das Crianças)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 확보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어를 정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 브라질 디아스포라 학교에서 5월 9일 한국어 정규 교과 과목 채택 기념식이 열렸다.



## 민주평통, 카자흐서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설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협의회는 5월 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알마티 시내 카자흐 민족 친선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현지 고려인 대표들과 동포들이 참석해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형석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분단된 남북의 현실이 한민족의 우수성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 장애요소”라며 남북이 신뢰를 쌓아 상생하며 번영하는 것이 현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 취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고려인 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평화통일을 위해 고려인 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로만 김 카자흐 고려인협회장은 “남북관계가 악화할 때 재외동포의 우려도 함께 커진다”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협의회는 카자흐스탄에서 재외동포 대상 통일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 한인 동포 영주권 취득 기준 완화



▲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인 동포들의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은 아르헨티나의 한류 팬들이 월드 스타 사이의 선물 크기 브로마이드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인 동포들의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했다. 4월 29일 아르헨티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마르틴 아리아스 두발 아르헨티나 이민청장은 이날 한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아르헨티나에 입국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 증명서, 무범죄 증명서, 고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한인 동포들은 앞으로 고용 증명서 제출을 면제받게 된다. 한인 동포들은 그동안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고용 증명서 제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동포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영주권이 없는 동포들도 더욱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길이 열렸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인정받

으면 1년짜리 단기 영주권을 세 차례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대사관 측은 “한인사회가 그동안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정할 것”이라며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인 동포 사회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발 청장은 우리 외교부 초청으로 3월 17~22일 한국을 방문했다. 두발 청장은 방한 기간에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을 면담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와 판문점을 시찰했다.



## “하노이대 등 베트남 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생 3천40명”



▲ 베트남의 대학교에 한국어 전공 학생이 3천여 명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한국 풍경 그림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베트남 대학생들

5월 24일 서강대에서 열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7차 춘계 학술대회에서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 학생이 3천여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동아대 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인 베트남인 유학생 부이김루언(25) 씨는 ‘베트남의 한국 언어·문화 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발표에서 베트남의 여러 대학교에 총 3천40명의 한국어 전공 학생이 있다고 밝혔다.

부이 씨가 최근 한국어나 한국학파를 두고 있는 베트남의 14개 대학에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기준으로 각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어 전공 학생은 하노이대 417명, 호찌민국립대 354명, 달랏대 321명, 다낭국립대 305명, 하노이국립대 291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하노이대의 경우 4학년 학생은 63명에 불과했지만, 3학년 115명, 2학년 116명, 1학년 123명으로 지난 4년간 매년 입학생이 늘었다. 다낭대에서도 4학년은 40명이었지만, 1학년은 105명으로 두 배 이상 불어났다. 브이 씨는 베트남 흥방대 한국학파를 졸업하고 2012년 초 한국으로 유학을 와 광주 호남대에서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아대에서 글로벌한국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자 수가 증가하는

## 사할린서 남북한·총련계 학생 첫 공동 미술전

러시아 사할린에서 남북한과 일본 총련계 학생들이 참가하는 공동 미술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사할린 유일의 한국어 신문인 ‘새고려신문’은 5월 13일 사할린 남부 공업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안톤 체호프 미술박물관’에서 ‘유라시아: 평화의 길로’라는 주제로 창간 65주년 특별 미술전시회를 개막했다.

미술전은 남과 북, 일본 총련계 학생들이 사할린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 한국에서는 인천예술고등학교 학생 작품 30점이, 북한에서는 평양학생소년궁전 소속 학생 작품 27점이 출품됐다. ‘재일 조선학생 미술전람회’에서 입상한 일본 총련계 조선학교 학생 작품 48점도 함께 박물관에 걸려 공동 전시회의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평화와 화해, 미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수채화, 먹, 드로잉, 한국화, 디자인 등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표현해냈다. 안나 주크 미술박물관장은 “학생들의 작품은 감동을 주는 것과 함께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면서 “아이 눈에 비친 세계는 국경과 민족을 넘어 보편적 가치인 선, 미래의 가치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전시회는 현지에서도 반응이 좋아 러시아 국영TV의 전파를 타기도 했다. 6월 2일까지 열린 전시회는 동포 지원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와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공동 후원했다.



▲ 관람객들이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 ‘안톤 체호프 미술박물관’에서 열린 새고려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미술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 과테말라수도 과테말라시에서 코리아타운 개소식

중미 과테말라에 코리아타운이 들어서고 수도 서울의 지명을 딴 거리 가 선포됐다. 주과테말라 한국대사관은 5월 13일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 7구역에서 추연곤 대사, 비니시오 세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 카를로스 바신 과테말라 문화장관을 포함한 동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리카르도 키노네스 과테말라시 부시장이 참석해 '서울로' (Avenida Seoul)를 직접 선포하고 서울시와의 협력 확대도 희망했다. 코리아타운은 과테말라의 외국인 커뮤니티 중에서 최초로 문화 특구를 조성한 사례라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특히 코리아타운에 생긴 서울로는 외국 지명을 사용해 도로 이름을 도입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서울로 직명은 2013년부터 본격적인 코리아타운 조성 사업을 벌인 대사관 측에 과테말라시청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대사관 측은 코리아타운 1단계 사업으로 태양광 가로등 30기와 폐쇄회로TV(CCTV) 57기를 포함해 거리 표지판과 차량 속도 표시기 등을 설치했다.

대사관은 과테말라시가 방문할 만한 명소가 적은 데다 치안 문제도 있어 그간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았으나 코리아타운 조성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1962년 한국과 수교한 과테말라에는 1990년대부터 우리 봉제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 현재 동포사회 규모는 5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 추연곤 주과테말라 한국대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비니시오 세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서울로'를 둘러보고 있다.

## I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전석호 · 한인회장에 제임스 안 씨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최대 단체인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에 전석호(미국명 로런스 · 48) 씨, 한인회장에 제임스 안 씨가 각각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전 씨는 5월 20일 열린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케니 박 · 이하 상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제38대 회장으로 공식 인준을 받았다. 이 단체 이사를 맡아 활동하던 전 씨는 홍보위원회 알렉스 차 공동위원장, 박진경 부이사장, 이재원 이사 등 부회장 후보 3명과 함께 입후보했다.

전 씨는 ▲상의의 민남의 장 역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 ▲차세대 경제 리더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UCLA에서 경제 · 경영을 전공한 그는 공인회계사(CPA)로, 부인 권한나 CPA와 함께 '전석호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고석화 회장이 경영하는 월셔은행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제임스 안 씨는 5월 1일 한인회관에서 LA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 제32대 미국 LA한인회장에 오른 것이다. 지난 1974년 LA에 이민한 그는 부동산 업체인 '웨스턴 인베스트먼트 & 리얼티 코퍼레이션'과 '한국장외사'를 운영하고 있다. 파바 윌드(재미한인자원봉사자협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안 대표는 전문성이 있는 한인 1.5~2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돕고, 20만 달러를 증자돈으로 기부해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췌**



▲ 제임스 안 제32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당선자가 5월 1일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화가 등 유학생 중심으로 시작한 프랑스 한인사 입양아 출신 장관 까지 배출



**프**랑스에는 10년 이상 거주하여 체류권을 소유한 사람, 일시 체류하는 상사 주재원, 유학생 등 1만4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프랑스에 처음 정착한 한인은 1936년 당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했던 이봉수 씨라고 한다. 이후에 프랑스로 이주한 사람들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프랑스 군대를 따라 프랑스로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28명에 달하며 대부분 프랑스 여인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한국전쟁 시 유입된 사람 중에 유명한 인물로는 어린이 청각장애 치료전문가인 루앙대학의 김양희 박사가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안정을 찾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이항성, 이성자 등 일단의 화가들이 유학을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프랑스는 화가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나라로 인식돼 미술을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이 증가했다. 그 외에 불문학을 전공하는 사람,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리학·수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사람, 철학·심리학·정치학·경제학 등 인문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대거 유학을 했다.

남학생의 경우 잔류해 동포가 된 사람도 있으나 그 수는 많은 편이 아니다. 여학생 역시 많은 사람이 귀국했으나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 잔류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많다. 유학생 이외에 프랑스로 다수 유입된 사람들은 1960년대 말에 독일로 파견됐던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다. 광산 근로자는 100 명이 채 못 되는 숫자이고 간호사의 경우 10여 명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은 대부분 프랑스에 자리를 잡고 특히 식당 등 요식업에 종사했다. 1970년대 후반, 특히 1980년대에는 한국의 상사나 주재원으로 파견됐던 지사원이 잔류해 교민이 됐는데 이들은 대부분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래 프랑스의 한인 사회는 유학생이 중심이었고 프랑스 특유의 개인주의와 예술가적인 기질 등으로 인해 한인회와 같은 조직 활동이 느슨했다. 그러나 현재는 독립된 한인회관과 함께 체제도 갖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파리 한인회관은 재불 상사들의 지원을 받아 구입했다. 프랑스에는 파리에 중앙 한인회가 있고 리옹과 보르도에 지방 한인회가 있다.



**1.** 2010년 월드컵 때 프랑스 파리 야외 응원 무대에서 동포들이 태극전사를 응원하고 있다. **2.** 파리의 한인들이 풍물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3.** 1960년대에 프랑스 파리로 공연을 떠나는 예술단이 출국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4.** 한국계 입양아 출신인 플뢰르 펠르랭 장관이 한국 방문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5.** 연간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파리 아를리타타시옹 공원에 자리한 '서울공원'




### 한인회와 한글학교 통해 결속다져

파리에도 한글학교가 있다. 한글학교는 1974년 한인 성당에서 토요학교의 형태로 출발했다. 처음에는 4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어린이 38명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후 학생 수가 증가하자 범교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92년 한글학교 운영권을 대사관으로 이관했다. 대사관에서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조직해 한글학교를 후원하도록 했다.

프랑스에는 8천 명에 달하는 한국 입양아가 있다. 입양아들의 부모는 양부모 모임을 만들어 연 1회 आय회를 통해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양부모회는 입양아를 건전한 한국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 한국에 친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는 친부모를 찾아 주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입양아 출신 중 정부 고위직에 오른 이로는 플뢰르 펠르랭(41·한국명 김종숙) 통상국무장관이 있다. 2012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장관직에 오른 펠르랭은 2년 동안 중소기업·디지털경제장관을 맡은 뒤 4월 9일 프랑스 장관급 인사에서 통상 최고위직 장관에 올랐다.

입양아들은 프랑스 법에 따라 만 18세가 돼야 성인이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양부모들을 통해야만 그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18세가 넘는 사람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어 이들이 한인회를 찾거나 한국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한국을 배울 수 있는 파리 7대학에 진학하는 경향이 많다.

프랑스의 한인은 북유럽 여러 나라와 달리 장기 유학생이 초기 교민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유학생 중에서도 화가를 비롯한 예술가가 중심이 되었다.

유럽에서 영국과 독일 다음으로 많은 한인이 있는 나라이지만 프랑스 한인사회는 주재상사 구성면에서 독일과는 다르다. 독일에는 제조업 관련 상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프랑스에는 무역상사, 은행 등이 많다. 



## 재외동포 기업인 북한개성공단방문 입주기업 둘러보며 투자 진출 모색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부분 기대를 안고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2명과 68개국 130개 지회를 둔 재외동포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회원 17명은 5월 2일 오전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일정을 마친 뒤 오후에 돌아왔다.

방북단에는 월드옥타의 김우재 회장을 비롯해 명예회장인 조병태 소네트사 회장(미국)과 천용수 코스트그룹 회장(호주),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인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미국),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오스트리아) 등 연매출 2천억~1조 원에 달하는 거상(巨商)들이 포함됐다.

또 신우승 엔지니어링 컨설팅그룹 대표(영국), 백용규 피시엠 대표·고해정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회장(이상 일본), 권영현 JCY 뷰티 디스트리뷰션 대표·김병수 MK마트 대표·정재윤 J2그룹 대표·허성철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회장(이상 미국), 정양진 이글로지스틱스 사장·안태호 토마토무역회사 대표(이상 중국) 등도 동행했다.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투자 및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타진하기 위해 단체로 개성공단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문단은 이날 개성공단 내 석촌도자기, 누리미아파트형 공장, 한전 등 입주 기업과 기반시설을 둘러봤다.

구매 상담, 공장 설립 여부 조사, 생산품 수입·판매 등의 의향을 사전에 개성공단 측에 전달하기도 했던 재외동포 기업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귀환했다. 판문점을 통과한 기업인들은 “투자하겠다”, “북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저임금, 고품질로 투자환경이 아주 좋다”라고 사상 첫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 방북에 대한 감회를 쏟아냈다.

### 투자계획 밝히며 투자 환경에 만족 표명

김우재 월드옥타 회장은 “이번에 투자 및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지에 공장 설립을 타진해 보겠다는 회원들이 방북했다”며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투자 여부와 규모 등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학 월드옥타 수석부회장은 “개성공단 내 기업들이 우수 제품을 만드는 현장을 생생하게



1. 개성공단을 방문한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환영 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다. 2. 동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으로 출경하기 전 기념촬영하는 모습 3. 개성공단을 방문한 동포 기업인들이 기반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4. 동포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목격하고 돌아왔다"며 "호주에 돌아가 투자 계획을 세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함께 방북한 조병태 소네트사 회장(미국) 역시 "아주 좋았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천500만 개의 모자를 판매해 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국내 중견기업인 유풍실업이 생산한 150여 가지의 모자를 수입해 미국에 판매하고 있다.

천용수 코스트그룹 회장(호주), 홍명기 듀라코트 회장(미국),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오스트리아) 등은 "역사적이고 의미가 있는 방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은 최근 대남 비방과 핵실험 위협 등 남북 경색 국면에서도 이들의 방북을 허용한 데다 방문단 가운데 대북사업 경험자도 포함돼 있어 남북 간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4월 24~28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실무진 5명이 평양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것도 같은 전망을 낳았다. 통일부는 최 사장의 방북을 통해 코레일과 OSJD 회원국 간의 철도 협력 수준이 제고되면 남북 철도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포 기업인 방문단에 포함된 월드옥타 고문인 양영식 진통일부 차관은 "이번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방문으로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국제화되기를 바란다"며 "활발하게 투자가 진행되고, 공단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외국에 수출된다면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모델', '통일의 물꼬를 트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㉞

## 벨기에로 입양된 용 애낭 감독 애니메이션 국내 개봉 “나를 버린 나라 한국, 이젠 사랑합니다”



▲ 애니메이션 '피부색깔=꿀색' 언론 시사회에서 용 애낭 감독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엄마가 아이를 싫어하고 밀어내도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매년 한국에 올 때마다 ‘내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인 1971년 벨기에로 입양된 용 애낭(한국명 전정식·49) 감독이 자전적인 애니메이션 ‘피부색깔=꿀색’의 5월 8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방한했다.

지난해 부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개막작으로 소개됐던 이 영화는 4월 11일 폐막한 캐나다 밴쿠버 R2R 청소년 영화제에서 청소년 심사위원 작품상과 성인 심사위원 작품상을 모두 차지했다.

유럽에서 만화가로 이름을 알린 그는 자신이 벨기에에서 입양아로 자라며 겪은 이야기를 2008년 만화책(그래픽 노블)으로 출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는 4월 29일 서울 명동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입양아가 결국 자신의 뿌리를 깨닫고 태어난 곳을 사랑하게 된다”며 모국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했다.

입양 서류에 쓰여 있던 이름 ‘jung sik’의 앞 글자 ‘정’을 양부모가 프랑스어 식으로 ‘용’으로 발음하면서 그의 이름은 ‘용’이 된다. 네 명의 아이를 두고서도 또 한국에서 입양을 한 양부모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피부색이 다른 이방인으로서 그들을 지울 수 없었다.

감독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는, 한국의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를 노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영화제로 꼽히는 안시(관객상·유니세프상), 자그레브(대상·관객상), 아니마문디(작품상)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계 80개 영화제에 초청돼 22개 상을 휩쓸었다. 5월 16일에는 ‘세계 입양인의 날’을 기념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특별상영회도 열렸다. 애낭 감독은 6월에 열리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 재미동포 첫 여성 주하원의원 신디류 한인 2세 대상 정치 리더십 멘토링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이 된 한인 1.5세 여성 신디 류(57) 씨가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14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섰다. 그는 4월 28일 경희대와 신일고에 이어 30일에는 인하대를 찾아 학생들에게 ‘한국의 뿌리에서 열린 재미 한인 디아스포라의 열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국내 청년들에게 사회적 약자이거나 소수라는 사실을 핸디캡(약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아무런 발전이 없으며, 오히려 이를 장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 주 98명의 하원의원 가운데 소수민족 출신은 8명뿐입니다. 의회가 출신 성분으로 나눠 정치했다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겠죠. 저는 오히려 소수민족인 것은 뒤로 감추고 보편적 가치인 평등·인권·민주주의를 앞세워왔기에 동료 의원과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대 미생물학과와 같은 대학 MBA를 수료한 실력파로, 남편과 함께 보험업에 종사하며 탄탄대로의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47세 늦깎이로 정치에 뛰어들어 낙선하는 등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도전해 2008년 초 미국 워싱턴 주 쇼어라인 시의 시장에 당선됐고, 2010년에는 주 하원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도 성공했다. 모두 ‘재미동포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그는 자신이 보험업에 종사하며 세 아이를 키우던 평범한 주부에서 시의원과 시장을 거쳐 주 하원의원 3선에 도전하고 있다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 삶을 강조했다.



▲ 재미동포 첫 여성 주 하원의원 신디 류

## ‘브라질 속의 한국인’ 전 주도한 김유나 유품 60점 수집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제공



▲ ‘브라질 속의 한국인’ 전 주도한 김유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4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브라질 수교 55주년과 한인 이민 51주년을 기념하는 ‘코레아노 노 브라질’ (Coreano no Brazil, 브라질 속의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을 열고 있다. 브라질 한인 1.5세인 김유나(31·여) 씨는 박물관이 주관 브라질문화원과 함께 특별전을 개최하는 데 앞장섰다.

김 씨는 전시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특히 한인 이민사를 소개하는 상당량의 유물을 기증하거나 대여해 한국으로 공수했다. 그는 “전시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점을 제공했다”며 “지난해 ‘브라질과 한국-50년의 우호관계’라는 책을 쓰면서 초기 한인 이민의 삶과 관련된 유물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고 감회를 밝혔다.

브라질에 한국을 알리는 책 ‘젊은 한국’ (A Jovem Coreia)을 2008년 발간하고 4부작 TV 다큐멘터리 ‘한국 만화 브라질 만나다’를 제작해 2012년 방송 전파를 타게 하는 등 한국과 한국사회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열중한 그는 한국과 브라질의 가교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12년에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으로부터 ‘세계를 빛낸 한민족 여성 문화예술인상’을 받기도 한 그는 “한류 바람으로 대중문화가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한국적인 가치를 알리는 게 부족하다”며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가면 가족애, 효도, 공동체 존중 등 한국의 전통이 가장 잘 들어 있는 전래동화를 브라질에서 번역 출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한 브라질문화원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전시회에 일정에 맞춰 방한, ‘브라질과 한국-50년의 우호관계’ 개정 한국판을 출판했다. 서울 시민청에서 브라질 문화를 소개하는 강연을 펼쳤으며 6월 11일에는 특별전이 열리는 박물관에서 ‘한인 이민사’를 주제로 한 시민 강연에도 나섰다. **김유나**



▲ 브라질 월드컵 붉은악마 응원 출정식  
◀ 지난 3월 2일 브라질 이구아수 국립공원에서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했다.

## 2014 브라질 월드컵 응원 준비하는 브라질 동포들 태극전사 응원으로 동포 간 단합 유도

김재순 | 연합뉴스 상파울루 특파원

2014 월드컵은 브라질 한인 동포들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 태극전사들이 볼 꽃 투혼으로 한국 축구의 기량을 한껏 과시하고 내친김에 16강, 8강의 좋은 성적을 거둬주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브라질 한인 동포들은 태극전사들의 선전에 힘을 보태겠다며 짜임새 있는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1월 한인회를 비롯한 동포 단체들과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Kocham, 코참) 등이 참여한 범한인 브라질 월드컵 지원위원회가 구성됐다. 브라질 대사관(대사 구분우)과 상파울루 총영사관(총영사 홍영중)은 측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따봉 코리아'라는 이름을 내건 응원단은 원정 응원팀과 길거리 응원팀으로 이원화했다. 원정 응원팀은 6월 17일 러시아와의 첫 경기가 열리는 쿠이아바 판타나우 경기장과 6월 22일 알제리전이 벌어지는 포르투알레그리 베이라히우 경기장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서포터스 클럽인 붉은악마와 함께 목창것 '대~한민국'을 외칠 계획이다.


응원단 규모는 러시아전 1천여 명, 알제리전에는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뿐 아니라 인접국 파라과이의 한인 동포들도 가세한다.

경기장에 직접 가지 못한 동포들은 상파울루 시내 한인 타운인 봉헤치로 지역에 모여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브라

질 내 케이팝(K-Pop) 동호회원들까지 합쳐 3천여 명이 길거리 응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6월 26일 상파울루 코린치안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응원단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붉은악마와 브라질·파라과이 한인 동포 등 3천여 명 외에 브라질 명문 프로축구 클럽 코린치안스의 서포터스 5천여 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같은 시각 봉헤치로에 있는 한국학교와 한인성당에서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별도로 응원전을 펼친다.

한인 지원위원회는 응원전에 참여하는 동포와 현지인들을 위해 붉은악마 티셔츠 1만2천 벌을 준비하고 있다. 응원 현장에서 케이팝 공연,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한국 음식 잔치 등을 마련하고 현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스 따봉 코리아'를 선발하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한인 지원위원회는 이번 월드컵에서 5만 한인 동포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한국 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띤 응원으로 힘을 보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인 지원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브라질-한국 상공회의소의 최태훈(54) 회장은 "2014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라면서 "본선에 진출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것뿐 아니라 동포 1.5세와 2세들이 단합된 한민족의 힘을 느끼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혜택 3개월 거주하면 자격 충족

**건** 강보험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으로부터 약 16만 원의 진료비 지원(피부양자 포함)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월 21일 공개한 '2013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구당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9만2천506원, 각 가구가 한 달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평균 15만1천345원 수준이었다. 보험료로 낸 돈의 1.7배를 보상받은 셈이다.

재외동포 역시 요건만 갖추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 한국에 입국한 날 즉시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재외동포는 출입국사실증명원(여권), 입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 1부와 함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보험료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징수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허위 난치질환)에 대한 혜택은 더욱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를 열어 올해부터 고가의 항암제, 자기공명 영상촬영(MRI)과 같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의 환자 부담액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부담이 큰 고가 항암제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 올해 4분기부터 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MRI도 급여 적용 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50%만 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는 4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할 때 거쳤던 국내 거소신고제를 오는 2016년 7월 1일 폐지하고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국민과 동등하게 금융거래와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할 때 거소를 정해 신고하도록 한 데 따른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Q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이다.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가?**

**A** 재외동포의 국내 건강보험 적용 기준과 관련해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는 진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재외동포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조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를 명시해 개정했다.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재외동포에게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치료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학생이나 국내 취업자 등 관련서류에 의해 국내에 체류할 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입국 후 일시 출국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지는 않았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한·미 정상

##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강력하고 긴밀한 동맹 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북핵 대처를 비롯한 현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단 대남 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 위협과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 과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지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해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역내와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

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 협력하자”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두 정상은 확인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또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관해 추궁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두 정상은 한·미 FTA와 관련해 “양국은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고 다짐했고,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자”고 의견 일치를 보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 등 인장 9점을 우리 측에 정식 반환했다. 두 정상은 5월 26일 한미동맹의 역지력을 확인하는 상징적 일정으로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공동 방문했다. ㉸

# 재미 한인 작가의 아프도록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하늘의 목소리' 독립출판상 수상

이강원 | 연합뉴스 뉴욕 특파원

한국의 출판사가 '한국전'을 주된 배경으로 펴낸 영문소설이 미국 독립출판도서상(Independent Publisher Book Awards)을 받았다. 미국 독립출판도서상 웹사이트(www.independentpublisher.com)는 국내 외국어 전문 출판사인 '서울셀렉션' (대표 김형근)이 지난해 출간한 '하늘의 목소리' (The Voices of Heaven)가 올해 전자책(e-book) 소설 분야에서 동상에 선정 됐다고 밝혔다.

재미 한인작가 매자 리 디바인(71·한국명 이매자) 씨가 쓴 이 소설은 6·25 전쟁 와중에서 가부장적 전통 가치와 질서가 붕괴되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권리의식에 눈을 뜨는 과정을 어린 소녀의 눈으로 그린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지난 1970년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 현재 미주리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문소설을 써왔다. 단편으로는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으나 장편소설로 상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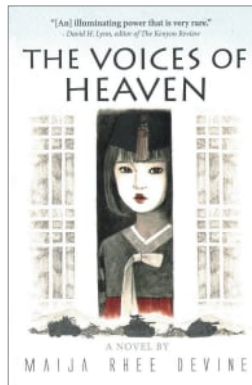
이 책은 지난해 5월 종이책으로 먼저 출간돼 아마존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선보였으며, 이후 아마존 킨들과 애플 아이북스토어 전자책으로 제작됐다. 지전적 소설로 상을 받게 된 이 씨는 "15년에 걸쳐 쓰고 다듬은 내 인생 이야기가 상을 받으니 감격스럽다"며 "대를 잇기 위해 남자들이만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의 불합리와 모순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소설은 이란성쌍둥이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곧바로 다른 집에 양녀로 들어갔으나, 양부모 역시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결국은 작은엄마를 들이면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크고 작은 갈등과 아픔을 한국전을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 소설은 최근 미국의 유명 서평지인 '포워드 리뷰즈' (ForeWord Reviews)가 선정하는 올해의 출판상 심사에서 역사, 다문화, 군사와 전쟁 등 3개 분야에서 후보작으로 선정돼 6월 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대표적인 서평 전문 매체 '커커스 리뷰' (Kirkus Review)는 이 소설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복합적이면서도 지극히 한국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호평했다. 커커스 리뷰는 이 소설을 "전쟁과 전통적 유교사상에 의해 찢긴 한국 서민 가정의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결혼 15년차 부부인 음천과 귀용은 서로를 사랑하고 입양한 딸 미나를 무척 아끼지만 아들을 낳아야 한다

▶ 재미작가 매자 리 디바인  
▼ 소설 '하늘의 목소리' 표지



는 한국 전통사회의 압력을 받았다. 결국 귀용은 가문을 이을 아들을 낳아줄 수양이란 재취를 맞이하고 이로 인해 음천이 절망에 빠지면서 완벽해 보이던 가족 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커커스 리뷰는 "이 소설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네 명의 주인공이 새 가족과 부대끼며 전쟁 폐허 속 혼란을 헤쳐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서 "1950년대 한국인의 일상을 풍부하게 잘 묘사해놓았다"고 평했다. 또 "서구사회에서는 목격하기 힘들었던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하는 한국사회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놓았다"며 "각 주인공들의 이야기에는 풍부한 감정이 살아있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소설에 깊이와 복잡성을 준다"고 찬사를 보냈다.

커커스 리뷰는 "가장 돋보이는 점은 세 여성 음천, 미나, 수양이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이라며 "이들은 유사한 투쟁을 하면서도 함께 싸울 수가 없다. 사회가 그들 사이에 썩기를 막아놓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결론 부분은 다소 우울하지만 아프도록 아름답다"면서 꼭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했다. **췌**

# OKF NEWS



▲ 5월 18일 중국 창춘시 박열호텔의 중식당에서 창춘조선족기업가협회 김용규 회장이 성금을 전달한 뒤 조규형 재단이사장(가운데)과 악수하고 있다.

## 각국동포 '세월호 위로' 한마음...한달간1억여원

재외동포재단이 각국 동포들의 세월호 참사 관련 성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이후 한 달간 1억여 원의 성금이 모였다. 재외동포재단은 각국 동포단체에서 세월호 참사 성금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자 동포사회의 기부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전용계좌를 개설, 4월 29일부터 성금을 접수했다.

지난 한 달 남짓한 동안 재외동포재단에 기탁된 성금은 5월 30일 현재 1억1천667만 원이다. 재단은 이 중 6천537만2천 원을 지난 12일 1차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고, 남은 5천129만8천 원을 포함해 5월까지 접수된 성금은 6월 초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재외동포들의 마음은 지역이나 한인사회 규모와 상관없이 세계 각국에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성금을 낸 아프리카·중동 한인회총연합회(5천만 원)를 비롯해 엘살바도르 한인회·경제인협회(4천980달러), 우즈베키스탄 한인회(8천298달러), 미국 하와이 한인회(7천11달러), 싱가포르 한인회(3만668달러) 등 각국 한인회가 마음을 모았다.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1천만 원의 성금을 냈고 스페인 라스팔마스 한국학교도 모금한 1천969유로를 보내왔다. 창춘조선족기업가협회(2만 위안), 세계한인무역협회 창춘지회(1만 위안), 주타이노인협회(3천100위안) 등 중국 창춘시의 동포단체들도 “유족과 대한민국이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외에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재일민단), 인도네시아 한인회,

미국 델러스 한인회 등에서도 성금 모금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세월호 참사 관련 한인 단체들의 성금을 외화(신한은행 180-006-439552)와 원화(신한은행 140-010-499253)로 구분해 접수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 02-3415-0133로 하면 된다.

## 조규형 이사장, 부임 후 첫 동북3성 방문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5월 12일부터 6일간 북경과 동북 3성 등 중국 지역을 방문했다. 부임 후 처음으로 동북3성 지역을 방문하는 조 이사장은 현지 동포단체 대표 및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과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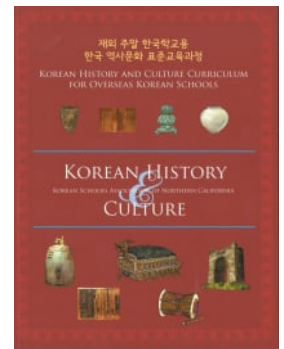
조 이사장은 선양한국총영사관 방문을 시작으로, 권영세 주중국대사와의 면담, 동포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선양, 창춘, 연지 지역의 한글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 시설과 동포 집거지를 방문해 동포를 격려하고 여건 등을 살펴보았다.

한편, 조 이사장은 13일에 북경에서 열린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 참석해 차세대 한상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함께한 후 17일 귀국했다.

## 동포 청소년, 한국 역사·문화 체계적으로 배운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회장 장은영)는 최근 재외동포 청소년의 한국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재외한글학교 교사용 지침서 ‘한국 역사문화 표준 교육과정’을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주로 주말에만 수업이 진행되는 한글학교의 특성과 학사 일정을 고려해 연 28주 과정으로, 초·중·고급 2단계씩 총 6단계의 수준별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동포 청소년들의 한국역사·문화 이해 수준에 맞춰 고조선의 건국, 세종대왕, 인שה울의 발



▲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가 재외한글학교 교사용 지침서로 만든 ‘한국 역사문화 표준 교육과정’

전 등 주제별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꾸며졌다. 한국 역사문화와 거주국의 역사문화를 비교하고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도 돕도록 했다.

이번 교육과정 개발은 재외동포재단이 각 한글학교의 특성에 맞춘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한 '맞춤형 한글학교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북가주 지역 이외의 한글학교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이 교재를 활용하고자 하는 한글학교 교사는 재외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스테디코리안(<http://study.korean.net>)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재단은 올여름 한글학교 교사 연수 때 이 교육과정의 활용법과 사례를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제작이나 교구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은 이번 ‘한국 역사문화 표준 교육과정’ 발간 사업과 같이 창의적인 재외한글학교 교육 관련 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사진전 공모

“전 세계 재외동포의 생생한 삶을 담은 사진을 공모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세계 한인의 날’ (10월 5일)을 앞두고 제2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동포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상작을 전시해 국내에 동포사회를 널리 알리려는 취지다. 공모전의 주제는 ‘코리안타운’, ‘재외동포 삶의 현장’, ‘세계 속의 한인’ 등이다.

거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시민권자·영주권자·장기 체류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카메라로 재외동포의 모습을 직접 촬영한 사진에 한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코리안넷([www.korean.net](http://www.korean.net)) 또는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okf.or.kr](http://www.okf.or.kr))를 통해 응모하면 된다. 상금은 대상 1명 100만원, 우수상 1명 50만 원, 입상 11명 각 30만원이다.

재단은 수상작과 함께 출품작 가운데 우수작 100여 점을 골라 오는 10월 7일에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행사 전후로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이나 청계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선보인다.

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는 29개국 484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조



▲ 2013년 제1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대상작. 미주 동포 김지민 씨 작품으로 2013년 8월 16일 미국 LA 원서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행사

규형 이사장은 “사진 공모전을 계기로 720만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가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 “온라인으로 재외한글학교 교사 연수 받으세요”

재외동포재단은 재외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연수 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재단은 재외공관에 등록된 한글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 중 175명 내외를 선발하며, 선발된 교사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6월 중순부터 10주간 70시간의 연수를 받게 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기존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주요 내용인 한국어 기초과정과 기본소양과정을 중심으로 현지 한글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됐다.

교육연수 이수자에게는 재단 이사장 및 서울대 평생교육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고 재단이 주관하는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에 우선적으로 선발될 기회가 주어진다.

재단은 향후 온라인 연수를 재외한글학교 교사의 의무교육 과정으로 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도 이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재외한글학교 교사는 현지 공관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한글학교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넷(<http://www.korean.net>)을 참고하면 된다. 

## 늑대를 위한 조시

정국희 | 미국 | 2013 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아침 여덟 시, 고속도로 입구  
늑대 한 마리 누워있다  
혼이 떠나버린 물결한 물체  
수의 입은 길이 붉다  
현장을 목격한 쪽부쟁이 한 무더기  
하얗게 질려있는 옆으로  
차의 행렬이 조의를 표하듯 속도를 늦추고  
심장이 찢긴 길의 무늬를 살짝 비껴가고 있다  
깊은 잠 끌고 어느 망초꽃 핀 산에 당도했을까  
아들을 가르며 질주하던 발바닥  
뛰어난 삶의 바닥 돌아본 듯  
산을 향해 뺨어 있다

오래 보아왔던 산  
푸름만으로 아늑했던 숲을 안식처로 삼고  
평생 한 일은  
없는 길 헤쳐 가며 등 움크리고 귀를 버리는 일 외에도  
바람의 행로를 타고 산을 넘나들며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었을 게다  
약육강식의 난세에 피붙이들 건사하려면  
사자의 힘을 길러왔으면 달려야 했을 게다  
아니, 별빛을 뜯어먹고 달을 훔으며  
비탈길 속도를 지그재그로 유지하는  
길과의 경주였을 거야

길 위에서  
천천히 길로 변해가는 몸  
숨 잦도록 흘러내린 비릿한 흔적  
바람이 공손히 지우고 있다

# 바른 말 고운 말

## 언뜻/아주

갑자기 생각날 때 '좋은 생각이 편뜻 떠올랐다'고 말하곤 하는데, 이 '편뜻'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이처럼 잠깐 나타나거나 문득 생각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언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이 언뜻 떠올랐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군중들 사이로 언뜻 눈에 띄었다가 사라졌다'란 예문에서처럼 잠깐 눈에 띄다고 할 때도 '언뜻'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잘못 쓰는 말 중에 '영판'이란 말도 있습니다. '영민이 동생이 영민이와 영판 다르게 생겼더라'라는 예문에서 '영판'이란 말은 흔히 된가 아주 다르거나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많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판'이란 말은 비표준어이므로 '아주'라든가 '완전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결'의 의미

'하침나절'이라는 말과 비슷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하침결'이라는 표현입니다. '하침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침 기분이 사라지기 전' 또는 '낮이 되기 전'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침결'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결'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겨울'이라든가 '사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침결'이라는 말 외에도 '잠결, 깃결, 겁결, 열떨결, 무심결' 같은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대개 뒤에 '~에'라는 조사를 붙여서 '열떨결에'처럼 부사로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결'이 파동파 같은 흐름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결'이라든가 '바람결' 또는 '숨결'과 같은 것이 있는데, '결'이 옛날에 '물결'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 낱말 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 6월호 문제

|    |    |    |    |  |    |    |    |    |
|----|----|----|----|--|----|----|----|----|
| 1  |    | 2  |    |  |    |    |    | 3  |
| 4  |    |    |    |  |    |    | 5  | 6  |
|    |    |    | 7  |  | 8  |    |    |    |
| 9  |    | 10 |    |  | 11 | 12 |    |    |
|    |    |    |    |  |    |    |    | 13 |
|    | 14 |    |    |  | 15 |    | 16 |    |
|    |    |    | 17 |  |    |    |    |    |
| 18 |    | 19 |    |  |    | 20 |    | 21 |
|    |    |    | 22 |  |    |    |    |    |

#### ▶ 5월호 정답

|   |   |   |   |   |   |   |
|---|---|---|---|---|---|---|
| 첫 | 금 | 강 | 산 | 운 | 동 | 화 |
| 눈 | 물 | 아 | 자 | 반 | 랑 |   |
| 고 | 지 | 도 |   |   | 강 | 도 |
| 연 | 기 |   | 망 | 향 | 심 |   |
| 구 | 만 | 세 | 수 | 문 | 장 |   |
| 소 | 식 | 수 | 술 |   |   | 임 |
|   | 물 | 개 | 병 | 사 |   | 동 |
| 부 | 구 | 명 | 모 |   | 잔 | 설 |
| 고 | 사 | 리 | 곡 | 물 |   | 한 |

#### 오른쪽 방향 열쇠

- 꽃이 피는 시기를 시샘하는 추위
- 밥을 지을 때 물이 모자라 꼬들꼬들하게 몹시 된 밥
- 옹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
- 상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중독 상태.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여자에게 소용되는 화장품이나 바느질 도구, 패물 따위를 팔러 다니는 사람
- 서양에서 발달한 그림 기법으로 그려진 수채화나 유화 등을 이르는 말
- 벗나무의 열매로 크기는 앵두만 하며 맛이 새콤하고 달다.
- 까미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 아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달이는 데 씀
- 조선 말기에 공무로 급히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 타던 말
- 고향을 그리는 노래
-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몸을 망침

#### 아래쪽 방향 열쇠

-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 꽃실 끝에 붙어서 꽃가루를 만드는 주머니 모양의 부분
- 나무로 만든 차, 마, 포, 줄 등 32짝의 말을 판 위에 벌여 놓고 공격과 수비를 교대로 하여 승부를 가리는 놀이
- 우리나라의 국화. 애국가의 후렴에 이 꽃 이름이 나온다.
- 먹는 물
- 책을 읽는 것
- 음식물이 배 속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향문으로 나오는 구린내 나는 무색의 기체
- 무나 오이, 마늘 따위를 썰어 말려서 간장에 절이고 양념을 하여 묵혀 두고 먹는 반찬
-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비. 아름다운 여인을 ○○○같다고 하죠.
- 쉬는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 버선만 신은 발. ○○발로 뛰어나와 손을 잡고 반가워하다.
- 낮잠.
- 이상으로 그리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상의 세계. 도원경
- 공무원의 징계 처분의 한 가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 조선 시대에 공사로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역마를 징발할 수 있는 표로서 주던 패
- 가정 살림에 쓰이는 온갖 세간

# 강원도 정선과 태백의 고산둘레길 운탄고도 하늘에 닿은 듯한 고개와 능선의 조화



**운**탄고도(運炭古道)는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등지에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 닦았던 길을 단장한 둘레길이다. 1989년 채산성이 떨어지는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쓸모없어진 이 길은 걷기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해발 1천m를 넘나드는 고개와 굽이치는 능선을 따라 뻗은 길을 무리하지 않고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석탄을 실은 탄차가 오가던 길이라 폭도 꽤 넓다.

운탄고도는 야생화가 많이 피어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만항재에서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등장했던 소나무가 있는 새비재까지를 일컫는다. 표고는 만항재가 1천330m, 새비재가 850m로 만항재에서 산행을 시작하면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많다. 거리는 약 31km이다. 한 시간에 3~4km를 걷는다면 8~10시간이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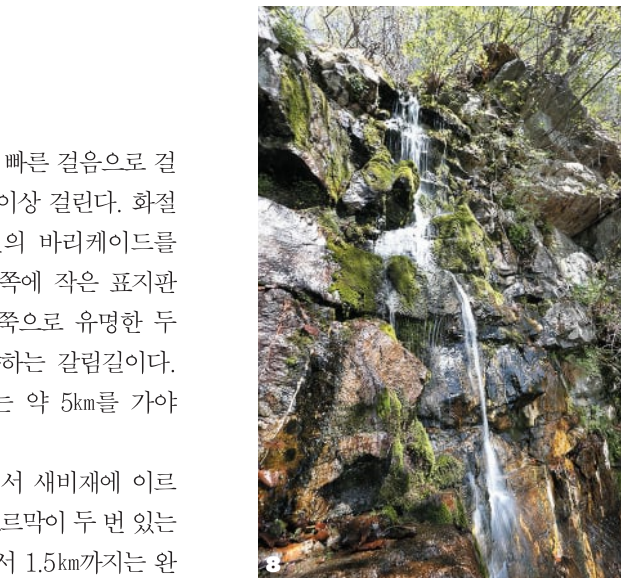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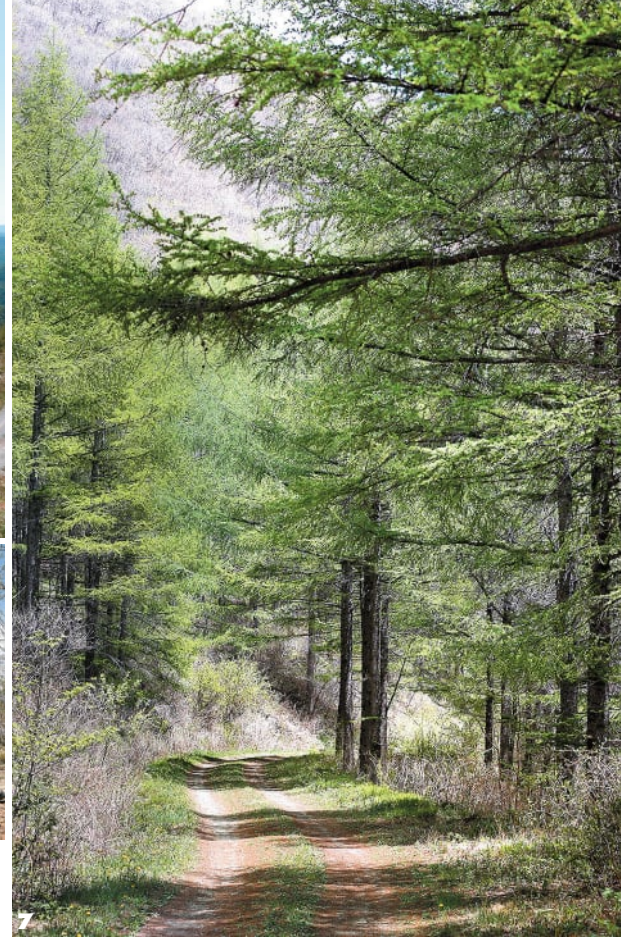
길이 익숙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위치한 화절령을 기준점으로 삼는다. 만항재에서 화절령까지 걷거나, 화절령에서 새비재까지 이동하는 식이다. 만항재와 화절령이 출발점으로 적당한 이유는 교통 때문이다. 만항재는 영동선이 다니는 고한역과 가깝고, 화절령은 하이원리조트에서 곤돌라를 타면 쉽게 닿을 수 있다.



운탄고도에는 편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짐을 잘 꾸려야 한다. 식수를 넉넉히 챙기고, 먹을거리도 여유 있게 준비한다. 기온이 낮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구간이 있으므로 점퍼나 두꺼운 옷도 가져간다. 또 표지판과 지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갈림길 정보를 확인한다. 고도가 높은 운탄고도에는 봄이 늦게 찾아온다는 점도 염두에 둔다.

운탄고도는 산림청이 허가한 차량만 다닐 수 있어 다니는 차가 거의 없다. 강원도 동부를 가로지르는 산맥의 형세가 웅장해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눈앞에는 높은 봉우리가 솟아 있고,





1. 1천m를 넘나드는 고개와 굽이치는 능선을 따라 뻗은 길 2. 광산 작업 때 만들어진 저수지 3. 강물처럼 부드러운 곡선으로 난 운탄고도 4. 넓은 공터에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오두막이 있다. 5. 벤치와 나무가 어우러져 식물원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6. 운탄고도를 걷는 여행객 7. 만항재에 서면 아름다운 나무가 도열한 모습을 볼 수 있다. 8. 운탄고도의 유일한 폭포

길가에는 다양한 나무가 자란다.

### 백두대간의 산허리를 따라 걷다

만항재부터 하이원리조트까지 8.3km에 이르는 첫 구간은 내리막, 평지, 오르막이 번갈아 나타나 지루함을 덜어준다. 만항재부터 혜선사까지 3.5km는 내리막이다. 혜선사를 지나면 오르막이 나타난다. 1.5km 정도의 완만한 오르막길이 끝나면 전망이 좋은 평탄한 길을 걷게 된다. 중간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가 보인다.

하이원리조트부터 화절령에 이르는 두 번째 구간은 길이가 약 6km로 짧다. 도보 여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중간에 평상과 벤치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숲이 우거진 호젓한 길에서 들꽃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걷다 보면 하이원리조트의 곤돌라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다. 운탄고도는 앞으로 18km쯤 남았으므로 갈림길에서 그만 걷고 산을 내려갈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인 화절령에서 새비재에 이르는 길은

16.8km이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4시간 이상 걸린다. 화절령에서 정면의 바리케이드를 지나면 오른쪽에 작은 표지판이 있다. 철쭉으로 유명한 두위봉으로 향하는 갈림길이다. 두위봉까지는 약 5km를 가야 한다.

화절령에서 새비재에 이르는 길에는 오르막이 두 번 있는데 화절령에서 1.5km까지는 완만한 오르막이다. 경사진 길 왼편으로 백두대간의 산줄기가 펼쳐진다. 이후 약 5km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평탄한 길이 5km쯤 더 이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중간에 쉬어갈 만한 평상, 작은 폭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운탄고도 최후의 오르막을 올라서면 일순간 나무가 사라지고 밭이 펼쳐진다. 경관이 극적으로 변하는 지점이다.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한 개간 작업이 이뤄져 토지 대부분이 밭으로 쓰이고 있다. 이어 소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는 새비재에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된다. 齣

#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서울지방병무청 제공)

영주권자 입영희망 제도란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복 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 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출원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을 얻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복수국적이거나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혹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접수 및 제출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 제출 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 신청서, 영주권 사본

## ■2014년도 해당 입영일자

3월 10일, 5월 12일, 8월 11일, 10월 6일 (해당 입영일자 이외의 입영일자에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입영이 가능함)

## ■병역의무

- 본인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다
-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 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
- 훈련소 입소 후 희망 근무지역(1~3) 파악 후 근무지 배정

## ■신청취소 및 국외여행 보장

시정에 의해 입영희망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 병무청장에게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기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_ www.mma.go.kr

※ 병무민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_ 1588-9090

##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 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 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 원고 보낼 곳 : wakar@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한 장 이내)

# 함께 해요

##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날 까지



**국가의 치매관리 사업, 자세히 살펴보세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http://www.nid.or.kr)



나라에서 치매를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세요? 국가치매관리 사업의 배스캠프,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세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치매현황, 실증 치매노인 지원사업, 치매극복 캠페인, 치매 전문교육, 파트너 광장 등의 메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치매 관리 사업을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치매 관련 캠페인에 대한 정보도 얻으세요.

**치매, 무엇이든 찾아보세요.**  
치매정보 365 [www.edementia.or.kr](http://www.edementia.or.kr)



치매에 대한 전문 자료가 필요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치매정보 365는 국내외 최신 치매 정보를 전달 하는 홈페이지로 치매 대책과, 사랑방, 상담실, 자료실 등의 메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실에 상담글을 올리시면 무료로 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언제 어디서든 치매정보 365에 접속해보세요.

**치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8세의 기억을 99세까지, 99세까지 88하게!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 어르신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세요? 치매상담콜센터가 함께 합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은 치매에 관한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니,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주세요.

**치매에 대해 궁금하세요?**  
치매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2013년 12월 1일부터  
24시간 365일 늘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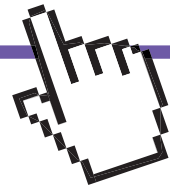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아넷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

[WWW.KOREAN.NET](http://WWW.KOREAN.NET)